

## 원희룡 국토부장관, “TK신공항 건설 대통령 약속” 적극 지원

9월중 신공항 등 추진 현장 점검...주요현안 조기 해결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대구·경북신공항 조기 건설에 강력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민이 하루빨리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지원 약속 후 정부차원의 후속 조치여서 지역 정치권의 기대감이 높다.

원 장관은 지난 8일 구미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 특강에 참석해 “대

구·경북신공항이 TK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앞장서겠다”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이날 원 장관은 특강에 앞선 간담회 자리에서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며 적극 지원을 재차 약속하고,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이달희 경제부지사, 지역 경제인 등과 지역 주요현안 및 건의사항에 대해 격의 없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중남부권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지난달 20일 '국민의힘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지역민이 하루빨리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거점 관문공항 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시행자 참여 ▷대구·경북선(광역철도), 중앙고속도로 확장 등 신공항과 연계한 교통망이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건의했다.  
원희룡 장관은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은 대통령의 약속이자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다”며 “신공항과 관련된 지역의 주요현안

에 대해 국토부 실무진들과 충분히 검토한 후 9월 중에 현장을 방문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지수 기자

## 야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K씨 사망 후 재추진 논란...조합 내부 내홍 격화

**유치권 점유에 대한 경고문**

당 현장은 **재조합건설(주)**이 민법 제320조에 의거하여 **채권자의 권리**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을 파손 및 훼손하거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게는 형법 제323조를 적용하여 엄중하게 법적조치를 하겠습니다.

※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회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치권자 : **재조합건설(주), 재조합건설**

조합장= “시행사 등 강압에 관계서류에 도장”...“대출금 연장 위해 어쩔수 없었다(?)” 반대 이사들= “졸속 사업재개 방관하면 조합원 피해 더 늘어날 수 있다” 우려  
현 시행사(D업체), 새 시행사(DH\*\*\*)... “사실상 같은 회사 아니냐” 꼼수 지적

지사업이 재추진과정에서 조합 내부 갈등으로 또 한 번 내홍이 격화하고 있어 사업 전망이 밝지 않다.

특히 보름 후인 오는 26일이 대구단(금고 26개사)으로부터 빌린 사업자금 280억원의 대출금 상환만기일이다. 이때까지 연장 승인이 불발되면 사실상 사업 중단(종료) 수순도 불가피해 보인다. 때문에 조합장과 시행사 등은 사업 재개 강행을 위해 시기가 도래된 대출금 상환연장에 사활을 거는 반면 사업재개 반대 이사들은 “졸속 강행이 오히려 리스크만 더 키울 수 있다”며 충돌해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지난 9일 현 대주단 관계자는 “대출금 상환 연장과 관련해 이후 사업 진행계획 등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로 원만하게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아직 연기신청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26개 참가 금고들의 의견을 모두 들어야 하고, 의견 결과 불승인되면 대출금 채권을 상환받아야 하니 법률적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즉, 이 경우 부동산 신탁과 체비지의 특수성으로 일반 경매가 아닌 공매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다.

이 사업에 깊숙히 관여한 복수의 조합 관계자는 지난 8일 “지금까지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현 시행사(D업체) K씨가 사망하면서 대출금 280억원 중 약 100억원 가량이 횡령 및 사기행위 의혹으로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책임져야 할 D업체가 사업수행 권리 해약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등 또 다른 일부 조합임원들과 결탁해 새 시행 예정업체(DH\*\*\*)를 끌어들이려 졸속 재개를 시도하려 한다”며 “조합원 보호를 위해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졸속 사업재개는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더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다.

이 관계자들은 특히 “택지사업 현,

시행사인 D업체가 추천해 새 시행사로 계약한 DH\*\*\* 대표는 (사망) K씨(D업체)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DH\*\*\*는 3년 전에 설립해 K씨가 사망하기 한달여 전 지난 5월 11일 회사명을 (DH\*\*\*)로 변경하고, 또 이 회사 사내이사가 지금의 D업체(대표)로 등재돼 있는 등 현 시행사(D업체)와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봐야 한다”면서 이들의 사업 의지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조합장과 사업 주체(D업체) 및 새 참여 시행사(예정)측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어떻게든(정관상의 절차와 과정 보다)사업 재추진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 시간이 없다”며 급속 강행 의지를 밝혀 그 배경에 또 다른 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부 이사로로부터 제기됐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 야사택지구정리사업(이하 택지사업) 현 시행사(D업체)의 실질적 대표(법정 대표는 부인 B씨) K씨가 100억원어 리스크를 남기고 지난 6월 9일 사망한 후 중단됐던 택

4면 계속



영천시의회  
YEONGCHEON CITY COUNCIL

2022년, 시민의 소망이 펼쳐집니다

## 시민과 동행하는 영천시의회

영천시의회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올바른 가치와 변화를 이끌어가는  
열린 의회가 되겠습니다.





# 영천시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 2021년 경영실적 평가 '최하위'

### 행안부, 지방공기업 2021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 28일 공개 기관장·임원-평가급 지급 못 받아, 내년도 연봉 5~10% 삭감

영천시시설관리공단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북에서는 문경과 함께 나란히 최하위 '마'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 하수도에서 하위평가를 받은 영천시하수도가 경영진단 대상 기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 지방공기업 25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지난달 28

일 발표했다. 평가 항목은 △지속 가능 경영 △경영 성과 △사회적 가치 3개 분야 20여개 평가지표가 활용됐고, 2021년 실적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대응 노력을 반영했다.

또 주민이 직접 경영평가에 참여하는 주민참여단을 지난해 96명에서 올해 204명으로 대폭 확대해 지방공기업 경영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

과 참여를 높였다.

평가단은 교수, 공인회계사, 노무사, 연구원 등 25개반 263명과 행안부 17개반 179명(민간전문가, 주민평가단 등), 도 8개반 84명(민간전문가)으로 구성됐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상위 '가' 등급을 부여받은 기관은 구미시설공단·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전남개발공사, 서울농수산물공사, 대구환경공단, 시흥도시공사 등 22개 기관이다. 전체의 8.6%를 차지한다. 상위등급을 받은 기관들을 살펴보면 경영성과 외에도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재난·안전 관리 등 사회적 가치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

반면 최하위인 '마' 등급은 경기교통공사, 서울물재생공단을 비롯해 청도공영공사, 당진항만관광공사, 영천시시설관리공단 등 9개 기관이 받았다.

행안부는 또 기초공기업 하위평가를 받은 기관 중 경영진단 대상기관 7개\*를 선정하였으며, 경영진단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영효율성 제고, 지속가능경영 전략 마련, 조직인사관리시스템 도입 등 경영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경영진단 대상 기관 7개=당진항만관광공사, 여수도시관리공단, 경주시시설관리공단, 부산스포트윈, 청도공영사업공사, 영천시하수도, 영광군하수도)

한편, 최하위 등급 기관 기관장과 임원은 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한다. 또 내년도 연봉도 5~10% 삭감된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cleaneye.go.kr)에 모두 공개되며, 지난해와 동일하게 주요 항목별 평가결과를 점수현황도표(스코어카드)로 공표(11월 중)한다. 장지수 기자

## <제2보> 치일1리 이장선거 청통면·은해사 개입 의혹 “개입한 사실 없다” 공식 입장 표명

### 마을 돈 4800만원 은해사가 대납 알고 보니=마을기금⇒은해사⇒영천시 은해사, “마을 위한 과정에 이익 취한 사실 전혀 없다” 해명

8월 1일자 영천투데이 「돋보기 <제2보> 영천시 청통면 치일1리, 이번에는 이장 선출 두고 복마전... 관 개입 의혹」 보도에 이어

◆ 은해사가 받은 수상한 마을 돈 48,031,100원(이하 4800만원), 은해사는 이득 없는 전달자

영천시 청통면 치일1리 이장 선거와 관련해 청통면과 은해사 개입 의혹에 일단 청통면과 은해사 측은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공식 입장이다.

앞서(1일자 보도) 청통면(관)은 “당일 마을회관에 간 사실은 있지만 주민 서명을 위한 성명서내용의 관계인 문장은 성명서를 작성한 개인(마을새마을지도자)의 일탈이며, 해당 개인으로부터도 정식 사과를 받아냈다”며 관 개입을 극구 부인했다.

또 은해사 역시 2일과 3일 본지와 통화에서 “관련 D스님에게서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두 기관 모두 4일 공식 입장 표명을 해왔다.

그러나 치일1리(이하 마을)에 조성된 '행복마을'(지하1층, 지상2층 2017년 10월 준공) 비리와 관련해 촉발된 이장선거인 만큼 '행복마을' 소유권을 둘러싸고 은해사가 깊숙히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 마을 일에 은해사의 입김 작용 의혹이 전혀 근거 없지 않다.

마을 핵심관계자들로부터 “이장 선거와 관련해 스님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고, 마을 돈 4800만원이 은해사와 관련이 없는 데도 마을에서 은해사로, 은해사에서 다시 영천시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마을돈이 왜 은해사로 들어갔고, 또 그 돈이 문제의 '행복마을' 토지(상가)분양대금으로 영천시에 납부되었느냐는 것이다. 은해사가 이 건으로 이득을 취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사유에 대해 주민들은 의혹을 품을 수 밖에 없다.

'행복마을' 사업부지(119㎡와 81

㎡, 치일리 397-1 변경 497-5, 498-4)는 2009년에 영천시가 은해사시설지구(집단지설) 사업을 위해 공공용지협의취득으로 보상을 완료하고 매입한 땅이다. 소유주가 영천시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2011년 11월과 2012년 11월 그리고 2015년 11월 세 차례에 걸쳐 A씨, B씨 그리고 은해사에 각각 지분 6506분의 108, 95, 119를 매각했다. 상가분양권 배분을 위한 편법 부지 지분 매각 행위다. 은해사 측은 “모두 마을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해명했지만 여기서부터 마을 일에 관여했다.

A씨 등은 “영천시 땅이 왜? 무슨 이유로 내(A,B씨) 앞으로 매매 등기가 완료됐는지 알 수 없으며, 매매대금 역시 어느 누구로부터도 주고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강력한 주장이다.

더 이상한 것은 당초 市 부지를 2015년 은해사 부지로 이전해 놓고 3억 원(자부담 6600만원)으로 이곳에 '행복마을'(웰빙보따리센터) 건립해 2017년 10월 19일 준공했고, 이어 치일1리영농조합법인에 모든 운영권을 넘긴 상태다. 치일1리영농조합법인이 경북도 공모 사업인 '행복마을' 사업 주체(3억원 보조사업)인데 영천시가 당초 영천시 부지를 다시 은해사 명의로 넘겨 완공 후 5년 뒤에 다시 치일1리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알 수 없는 과정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또 더 이상한 것은 '행복마을'(웰빙보따리센터) 준공 3개월을 앞둔 2017. 7. 12(준공은 2017.10.19) 영천시는 A씨(108), B씨(95) 지분과 市 지분 6506분의 6387까지 전부를 은해사로 이전했다. 행복마을 착공 후 1년 뒤에 일어난 일이다. 알고 보니 은해사가 은해사집단지구시설 상가분양권을 보장받기 위한 편법으로 파악돼 그 원인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이 파생될 전망이다.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은해사가 분양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소유권이 없었던



사진은 청통면 치일1리 영농조합법인의 행복마을

은해사는 이 땅의 소유권을 시로부터 매입 형태로 이어받아 마을 영농조합법인으로 다시 넘기기 위한 절차를 만드는 과정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은해사는 “행복마을사업 주체인 마을(영농조합법인)에 토지 사용 승낙 및 소유권이전 합의서를 명의 신탁형태로 가담하고 대신 마을 돈으로 토지 주인의 지위를 확보해 마치 마을에 부지를 무상기증하는 스텐스를 취했다”는 것이 마을 전 이장의 설명이다.

바로 이 때 마을돈 4800만원(토지매입비 4560만원, 등기 이전비용 243만원)이 은해사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쉽게 설명해 “마을과 영천시의 사업에 은해사가 주인 행세를 했다”는 이장 후보자의 설명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참고로 해당 합의서(2015.12.17) 내용을 살펴보면 “소유권 이전에 따른 비용은 모두 마을이 부담하기로 하며, 또 해당 부지가 은해사로 등기 완료되는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다음달 말일까지 마을(치일1리영농조합법인)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은해사측 관계자는 4일 본지와 통화에서 “D스님께서 마을 일에 깊게 관여해서도 관여한 사실도 없다”면서 그러나 “시기와 장소 등 주민과의 접촉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더 신중하게 행동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 K, H 두 후보 이장임명 추천서 청통면이 반력
- ◆ 보조금 횡령 의혹 어디까지?
- ◆ 보조금사업 재산처분 제한규정 위반(불법임대)

○ 재산 처분의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사후 관리
- 사업주체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처분이 제한된 재산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양도, 교환, 대여(임대차, 사용대차), 담보의 제공
-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 : 부동산과 중물, 기계, 장비, 기타 특별히 정하여진 재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과 중물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기계, 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 관리기간으로 설정

○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군은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 실시(도 합동점검 가능)

한편 4일 청통면과 치일1리 등에 따르면 앞서 K씨(7월14일)와 H씨(8월 2일)의 이장 임명 추천서는 각각 청통면으로부터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려 사유는 K씨는 분실된 회의록 첨부 보완조치 미이행, H씨는 투표를 위한 주민총회 적법성 논란이 사유다. 현재 공석인 이장 사태에 향후 청통면은 직권으로 8월 중 마을총회를 다시 개최해 새 이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행복마을' 건립당시 보조금 가로채기 의혹이 불거져 이를 밝히려는 K씨와 정당화하려는 H씨와의 일전은 계속되고 있다. '행복마을' 건축공사와 관련된 2017.10.30 영천시로부터 전 기시설 보조금 1850만원을 받아 2017.11.2 Y업체에 고스란히 공사대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대금 지급 한달여 후 다시 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되돌려 받아 보조금을 가로챈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행복마을 사무관계자는 “업체로부터 잔조금으로 되돌려 받았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1880여만원의 공사업체가 “공사대금보다 더 많은 1천만원을 잔조금으로 냈다는 사실에 주민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돈을 돌려받은 시기나 금액, 그리고 그 사유가 잔조금일 수는 없다는 게 K씨 등

의 주장이다.

K씨 등은 그 외에도 마을은 또 보조금사업의 법적 완성시기도 도래되지 않았는데 일찌기 건물 2층을 개인에게 임대해 300만원(년)씩 세차레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2016.6.21 이후부터 원장과 통장이 일치하지 않은데다 Y업체로부터 받은 1천만원(잔조금 주장)의 통장입금 내역도 확인되지 않고 2015.9부터 2016.1.3까지와 2017년 1년간의 원장 기록도 없거나 부실한 등 의혹이 많다고 밝혔다.

이처럼 '행복마을'을 향한 의혹들이 결국 이번 이장 사태로 변저 갈수록 법정비화할 움직임인데다 청통면이 직권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할 움직임 자체도 관 개입의혹을 받을 수 있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아 보인다.

한편, 은해사 주변과 마을 일각의 관계자들은 “K, H 두 후보가 청통면으로부터 이장 임명 추천서가 반려된 만큼 앞서 공식적인 선거관리위원장(노인회장)이 다시 주민총회를 열어 주민화합을 위해 K, H씨가 마을을 위해 출마했던 만큼 K씨, H씨 순으로 한번씩 이장을 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묻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장지수 기자



# 경북도, 무궁화 우수분화 117점 전시

금상 상주시, 은상 영덕군, 동상 포항시, 특별상-道산림환경연구원 수상

우수 작품 충남 보령서 10일부터 전시

경상북도는 지난 4일 경북산림환경연구원(경주)에서 나라꽃 무궁화의 국민적 관심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 나라꽃 위상과 우수성 홍보를 위해 '2022년 경상북도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를 개최(전시)했다.

올해로 두 번째 맞는 품평회(최초 2020년도)에는 도내 13개 시군에서 57점, 道 산림환경연구원에서 60점을 출품해 총117점의 무궁화 분화가 출품해 나라사랑의 위용을 드러냈다.

품평회는 외부에서 초빙한 전문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금상은 상주시, 은상 영덕군, 동상 포항시, 특별상에 道산림환경연구원 수상으로 4개가 선정됐다.

우수 작품들은 10일부터 15일까지 충남 보령에서 열리는 산림청 주최 2022년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에 출품 및 전시될 예정이다.

김효정 기자



무궁화(우리꽃사랑연구회, 여상환 작, 단심계)

# 영천 조교파크골프장, <sup>전국 13번째</sup> 공인구장 인증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영천시는 (사)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지난달 27일 현장 점검 후 8월 1일부터 '영천 조교파크골프장'이 전국에서 13번째 공인구장 인증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영천 조교파크골프장은 55,326㎡ 부지에 4코스 36홀로 장내에 매표소, 막구조, 화장실, 티박스, 안전망 등 부대시설을 갖췄다.

또 하루 평균 250여 명 이상의 동호인들이 기존에 활동하고 있으나 이번 공인구장 인증으로 영천시 외 동호인들의 방문도 있을 것으로 예상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영천은 2014년 금호강변 파크골프장 조성이후 18홀 오수동 파크골프장, 2017년 6월 11억의 사업비로 27홀 규모의 조교파크골프장을 조성했다.



조교파크골프장은 조성 당시 금강코스, 장천코스, 조양코스 3코스 27홀로 이뤄졌고 2021년 사업비 7억을 들여 시설개선 및 확장공사로 기존부지보다 더 넓은 55,326㎡, 4코스 36홀 규모로 확장됐다.

김효정 기자

# 경북도, 골프장 농약잔류량 실태조사...농약 사용안전기준 준수

도내 골프장 54개소 토양·수질에서 고독성 농약 검출 안돼

경상북도가 지역 골프장 농약잔류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잔디사용허가 농약(13종)만 미량 검출돼 경북도내 골프장의 경우 농약 사용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경북도는 2022년 상반기(4~6월) 농약사용 실태 조사를 각 시·군과 합동으로 경북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지역 골프장의 환경위해예방과 농약사용감시를 위해 골프장 농약잔류량 실태조사를 벌였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보다 1곳(경주 루나엑스GC) 증가한 54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펼쳤다.

골프장의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최종방류구, 연못) 시료 486건

을 채취해 고독성 농약(3종), 잔디사용금지 농약(7종), 골프장에 사용가능한 일반 농약(20종)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모든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및 잔디사용 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갈색잎마름병, 동전마름병 등의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잔디사용허가 농약(13종)만 미량 검출됐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54개 골프장은 농약 사용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건기와 우기로 나뉘 연 2회 불시에 실시하고 있다.

장지수 기자




○ 경북 골프장 검출된 잔류농약의 일반적 특성

연번	농약(품목)명	분류	적용 병해충잡초	상품명
1	아세페이트 (Acephate)	살충제	거세미나방, 금병어	아나콘다, 흑룡
2	아зок시스트로빈 (Azoxystrobin)	살균제	라이족토니아마름병, 갈색잎마름병	헤리티지, 올센스 선샤인, 유니폴
3	카벤다짐 (Carbendazim)	살균제	탄저병, 설부소립균핵병, 갈색잎마름병	캐프탄, 탄자코, 탄탄
4	디니코나졸 (Diniconazole)	살균제	녹병	빈나리, 마이백
5	플루톨라닐 (Flutolanil)	살균제	라이족토니아마름병, 갈색잎마름병	녹색바람, 뉴그린 포청천, 폰카트
6	이프로디온 (Iprodione)	살균제	라이족토니아마름병, 갈색잎마름병	로브탈, 인바이오프로, 세노브란, 균사리 등
7	옥신-코퍼 (Oxine-copper)	살균제	점부늑낙엽병	영일옥서동
8	피리메타닐 (Pyrimethanil)	살균제	동전마름병	금모리
9	테부코나졸 (Tebuconazole)	살균제	라이족토니아마름병, 갈색잎마름병	통테이크, 두아줄 실바코, 해모수
10	티플루자מיד (Thiophanate-methyl)	살균제	라이족토니아마름병, 동전마름병	멀리건, 필승, 그레탐 트리닥터
11	티오파네이트-메틸 (Thiophanate-methyl)	살균제	갈색잎마름병, 동전마름병	신농지오관, 균지기 틱신엠, 디모스
12	티람 (Thiram)	살균제	브라운패취, 설부병, 탄저병	아머, 호마이, 금나락, 참조네
13	트리플루미졸 (Triflumizole)	살균제	갈색잎마름병, 녹병	트리후민

## 금호새마을금고 본점 객장을 새롭게 단장(리모델링)해

# 8월 16일 업무를 개시합니다




새 환경에서  
**더 가까이,**  
**더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이사장	김종열	이사	하태섭
부이사장	정귀용	이사	김한식
이사	최 돈	감사	신문수
이사	조해도	감사	고현태
이사	박수문	감사	방형국
이사	최종순	상무	

**본점** : 영천시 금호읍 금호로 103 ☎(054)334-0259

**지점** : 영천시 대창면 금창로 681 ☎(054)335-4132



**MG금호새마을금고** 임직원 일동



# 야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재추진 논란... 조합 내부 내홍 격화

1면에 이어

이 과정에서 조합장은 지난 7월 28일 280억원 대출 연장 및 사업 재계와 관련된 '합의서', '건축인·허가 동의서' 등 관련 서류에 강요에 못 이겨 날인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쌍방 고소·고발이 예상되는 등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사업을 강행하려는 조합장과 비상대책위원장(?) 및 새 시행사(DH\*\*)는 본지와 통화에서 "조합장 날인 서류는 맞다"면서도 "아직 계약한 것은 없다.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와 조합장의 답변을 종합하면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조합장은 "택지사업이 중단되면 다 죽는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나는 오직 택지사업 성공이 목적이다"면서도 "대책위원장(?)이 고압적으로 오늘 도장을 찍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여 "협박에 못 이겨 동의해 주었다"고 말했다. 때문에 일부 이사들로부터 "정관 절차를 어겨 무효다"는 지적과 함께 조합장의 태도를 비난했다.

**시행사·조합장 등="P건설(1군)이 영천에 아파트 조성 약속 MOU" 비상대책위(?) J씨="기사 나중에 쓰세요, 보도전에 보여 달라" 강요 왜? 대출금 상환 만기일 8월 26일...연장 안되면 대주단, 자금회수 불가피 일부 이사·조합원, 조합장 및 시행사...쌍방간 고소·고발전 남발 초읽기 영천시="걱정은 되지만 인·허가사항 외 조합 내부 상황 관여할 수 없어"**

앞서 '합의서', '건축인·허가 동의서', '사업계획 변경' 등은 정관 제17조에 따른 총회의결사항이다. 정관으로는 대의원의결이 일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지만 사업계획변경과 주요사항은 불가하다.

따라서 일부 반발 이사들은 "조합장이 총회를 거치지 않은 이같은 항목의 일방적 결정은 정관 위반이다"며 반발하고 있고, 반면 비상대책위(?)는 총회 의결없이도 가능하다. 너무 오해하고 있다. 정확하게 알고 써야 한다. 체비지 처분은 대의원의결에서도 문제없다. 제가 대의원이라면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카톡방에 올려 대의원승인을 모두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또 일부 이사들은 "조합장

이 조합 운영비 1억8500만원을 개인(K씨) 통장으로 인출해 지금까지 변상하지 않고 있는 등 조합의 이익을 해치고 있고, 시행사측과 결탁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여 직무유기와 배임(횡령)이 확실하다"며 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과정속에서 일부 이사들의 반발로 조합장 직인(인감) 등을 이사들이 내어놓지 않자 조합장 측은 9일 오후 조합 사무실 금고(조합주요물품보관)문을 강제로 개방해 내용물을 접수한 한편, 조합장 직인(인감) 도난신고를 내고 사업진행과 관련한 조합장 직인(인감)을 새로 등록하기 위한 수순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9일) 일부 이사(갑사)는 조합장에 반발해 사퇴하고 "새 인감 등이 만들어지면 사실상 조합장측 등의 사업강행에 특별한 제한이 없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결국 사업 강행측과 이를 문제삼는 일부 이사들간 법정시비가 불가피해졌다. 일부 이사측은 현재 D업체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업무상횡령으로 검찰에, 또 조합장과 비상대책위원장, DH\*\*대표 등 5명에게는 업무상배임으로 각각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조합장과 사업강행 측에서는 일부 반발 이사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각각 고소한 등 양측이 고소·고발전으로 치

닫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합원들의 사업 불안요소 발생에 관리책임이 있는 영천시가 수수방관했다는 지적에 영천시는 "조합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할 수 없다. 조합 임원과 대의원들이 잘 해결할 것으로 본다. 걱정은 하고 있지만 우리시 인·허가사항 외에 조합 내부사항에는 특별히 관여할 수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

한편, 일부 이사들은 비상대책위원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스스로 비상대책위원장(?)을 자임한 J씨는 본지 취재와 관련해 "(280억원 만기일 연장)잡음이 일어나면 안된다. 포스코유치는 거의 확정적이다. 앞서 (사망)K씨가 공사비 일부를 개인 사채빚 갚는데 사용해 리스크가 만들어 졌지만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중이다. 이상한 기사가 나가면 포스코(MOU)가 안 올 수 있고, 또 대출 연장이 어렵게 된다"며 "기사를 보류해 달라, 보도를 하려면 사전에 기사를 먼저 보여 달라"는 등 강요해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장지수 기자

## <제2보> 영천시 주공3차 경로당 보조금 '부정사용' (착복)의혹 제2라운드

경로당 자체 대책회의(5일)서 부정사용액 480만원 배상하라 의결 영천시, 현재 감사(조사) 중... "결과 나오는데로 조치하겠다" 회원 일각... '이 모 회장'과 '안 모 부회장' 징계조치 요구

<본지 7월14일자 4면 '영천시 망정동 Y 경로당 L회장·A부회장 보조금 '부정사용'(착복) 의혹'기사의 '망정동'을 '주공3차 경로당'으로, 또 'L회장'과 'A부회장'을 '이 모 회장'과 '안 모 부회장'으로 바로잡습니다>

영천시 야사주공3차 경로당 보조금 '부정사용'과 관련해 본지 지난 7월 14일자 보도와 관련해 영천시가 이를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뒤늦게 재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주공3차 경로당 '이 모 회장'과 '안 모 부회장' 등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체 수입 31,114,154원 중 일부 부정사용 의혹이 드러나 최소한 4,805,450원을 환수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당시 회원들은 "영수증 없는 부분을 감안한 정산 내역이 이처럼 엄청난 차액이 발생하는데 실제 환수해야 할 금액은 1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히고 "영천시가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주공3차 경로당(현, 회장 조규웅)이 자체적으로 '이 모 회장'과 '안 모 부회장' 보조금 '부정사용'(착복) 해결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참석 회원 중 19표대 11표로 이들에게 48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11표에는 이 모회장 등 당사자의 표도 가중됐지만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이날 경로당에는 35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이 모 회장'과 '안 모 부회



8월 5일 주공3차 경로당 보조금 부정사용금 환수를 위한 투표

배상을 확정 발표했다.

이런 과정에서 이 모회장과 일부 회원간 다툼도 발생해 논란이 증폭되면서 일각의 회원들은 "이대로는 경로당 분위기가 더 심해진다. 두 사람에 대한 징계절차를 거쳐 어떻게든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보조금 부정사용 후 더 목소리를 높이는 '이 모 회장'과 '안 모 부회장'에 대한 거리두기 징계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회원들의 결정에 이 모회장은 "우리 아들이 100만원만 물어주고 뒷어라"고 했다면서 "100만원 외에는 못내놓겠다. 나는 단돈 10만원도 내가 쓴 것이 없다"며 항변하자 한 회원은 "(이 모 회장) 당신은 지난 번 다른사람이 회장할때 장부도 없

고 영수증이 없다며 변상하라고 해당시 17만원을 변상했다"며 "이모 회장도 이에 따라야 한다"고 맞받아 한 때 경로당이 몸싸움으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현 회장의 회의 주재에 "코로나 문도 안 열었는데 장은 왜?봤나, 장 본 것은 어디갔나?, 2019년 경로당 외식 총 11회 언제, 어디로 갔는지도 밝혀라"는 한 회원의 질문에 조 회장은 "2019년~2021년(3년간)까지 수입 총액 3100만여원 중 카드, 자동이체, 운영비 등을 공제하고 2100만원 정도가 영수증 없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공개해 회장이 내가 술렁거렸다.

반면 영천시와 동부동은 "현재 감사계와 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데로 책임부분이 발생하면 정상적으로 환수하고, 또 재발방지를 위한 어른들의 역량강화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 농어촌공 영천지사, 혹서기·우기대비 안전사고 ZERO!, 지속적 현장 점검



불시 안전사고 발생가능성 높아 반드시 기본 지키는 현장 강조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지사장 이관우)는 하절기 우기 대비 현장 안전에 대해 꾸준히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지사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현장 안전사고 제로(ZERO)를 위해 관리자 및 공사감독 등 11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가동한 결과를 바탕으로

로 지속적인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사는 이미 실시한 현장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지역개발사업,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등 총 14지구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하절기 우기대비 관련 수방자재 구비 현황, 사면 붕괴 우려 여부, 현장 자재 및 현장정리, 폭염대비 근로자 쉼터 설치 등 주요 안전 점검

항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건설현장, 신규 착공지구, 안전관리 취약지구는 자체 안전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는 혹서기 및 우기에는 불시에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위험요소 사전 제거를 위해 현장 담당자 및 근로자에게 "기본을 지키는 현장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효정 기자



# 예천, 곤충산업거점단지 200억원 투입,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예천곤충축제 참석 현장간담회서 밝혀 이철우 경북도지사, “곧 곤충으로 먹고 사는 시대 온다” 확신

경북 예천이 대한민국 곤충 거점 도시로 굳혀지고 있다. 농식품부가 예천군에 2024년까지 200억원(국비 100, 지방비 100)을 투자해 곤충산업거점단지로 조성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지난 6일 오후로 제4회째인 예천곤충축제장에 방문해 앞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곤충 판로개척, 제품개발 등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예천군에는 곤충원료 생산(가공), 유통시설을 집적화하고,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소재 연구개발, 산업기반 구축 등 생산·개발에서 판매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곤충산업 거점단지를 조성해 3개소에 2024년까지 200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예천군은 지난 6일 오후 정

황근 농식품부장관과 이철우 도지사, 김형동 국회의원, 김학동 예천군수,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최병욱 예천군의회 의장, 지역 곤충업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천 한천체육공원에서 ‘SEMI 곤충엑스포 2022 예천곤충축제’를 개최해 오는 15일까지 10일간 살아있는 곤충 체험 및 예천의 맛과 멋,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곤충자원의 활용 범위가 대체 단백질, 건강기능식품, 의약 소재 등 영역이 넓다”면서 “곤충산업을 우리 농업이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행사는 곤충산업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지역 생태관광의 새 지평을 여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곤충은



미래 식량자원일 뿐만 아니라 식의약품 소재이다. 곧 곤충으로 먹고사는 시대가 온다. 경북과 예천이 그 시대를 이끌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올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곤충산업 거점단

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4년까지 200억 원 규모의 곤충원료 대량 생산, 가공, 유통 시설을 집적화한 거점단지를 예천 지보면 매창리에 조성할 예정이다.

또 7월 경북도·롯데중앙연구소·경

북대·예천군 간 업무협약을 통해 대기업·대학과 연계해 곤충원료를 활용한 제과·웰빙식품 등의 일반식품 개발을 통해 곤충산업의 판로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장지수 기자

# 올 여름 휴가 축제여행 ≡ 봉화로 떠나자! 30일부터 봉화은어축제 닷 올려

### ‘산타마을’ 봉자페스티벌 등 여름 축제 잇따라 개막 “불볕더위 시원하게 봉화에서 가족과 함께 휴가로 즐기자”

문체부 대표 축제인 봉화은어축제가 지난달 30일 개막하면서 경북 봉화가 여름 휴가축제로 사람들이 북적였다.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가장 깨끗한 물에서만 산다는 은어를 맨손으로 잡을 수 있으며, 한여름 때 아닌 ‘산타마을’에서 올 여름 휴가를 아이들과 보낼 수 있도록 최고의 여름 축제 여행지 봉화에서 30일부터 은어축제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북 봉화에서는 지난 23일 개막한 분천 ‘한여름축제’가 8월 21일까지 열린다. 또 지난 28일 개막한 봉자페스티벌은 8월 7일까지 이어지고, 이번 은어축제도 이날 개막식을 갖고 역시 8월 7일까지 개최되면서 전국 여름휴가 인파들이 모이고 있다.

코로나19로 3년만에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봉화 내성천 일원에서 ‘봉화에서 COOL하게! 은어로 FUN하게’란 주제로 물놀이장, 놀이체험존, 샌드아트 모래 놀이장 등 아이들을 위한 ZONE은 물론 축제속의 야시장, 은어먹거리 장터, 잡은 은어를 구워 맛볼 수 있는 숯불그릴코너 등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이 풍부하게 마련됐다.

또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산타마을’에서는 한여름 별빛여행, 산타쿠깅클래스, 체험 놀이터, 플라마켓 등이 운영되며, 8월 7일에는 열차 관광객과 산타가 함께하는 ‘도착! 미션 도착드림팀!’, 8월 13일, 21일에는 ‘썬 산타를 찾아라’ 등 특별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사진=이철우(오른쪽) 경북도지사가 봉화 은어축제장에서 봉화를 찾는 관광객에게 환하게 웃으며 은어 잡이 체험을 보이고 있다.>

특히 축제기간 내내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는 여름에 피는 털부처꽃, 긴산꼬리풀, 벌개미취, 범부채 등 봉화의 자생화들이 환한 웃음으로 관

객을 맞는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한 여름 불볕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여름축제를 경북에서 휴가를

보내며 맘껏 즐겨 주시길 바란다”며 “경북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축제여행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 우리그릇 전국 공모전 대상에 이승백씨

### 경북도, 전국 166명 참가 성주에서 처음 열려



대상 이승백씨 ‘청개구리연리문다관’

경상북도는 이달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경북도예협회(이사장 김종훈) 주관으로 ‘우리그릇 전국 공모전’이 성주 월항면에 위치한 아트리움 모리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작품접수를 받았고, 같은 달 28일 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상작을 이달 11일 오전에 아트리움 모리에서 시상한다. 대상 1점, 금상 1점, 은상 1점, 특별상 1점, 동상 3점, 장려상 5점, 특선 6점, 입선 114점 총 132점이 입상했다.

대상은 이승백씨의 ‘청개구리연리문다관’으로 여러 색깔의 흙을 사용해 무늬를 만드는 연리문 기법으로 제작해 기능성과 아름다움을 겸비한 작품이다. 이 외에도 오순택씨의 ‘현암호2’가 금상, 박종훈씨의 ‘백자 차우림이’가 은상으로 선정됐다.

우리그릇 공모전에는 총 166명이 참가하고 341점의 차우림이(다관)가 출품됐다. 김효정 기자

# 영천9경 관광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총 12점, 대상 300만원

오늘(8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접수) ‘영천9경 관광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이 개최된다. 영천시 관광진흥과(과장 서명환)는



‘영천9경’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참신하고 색다른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영천9경’ 브랜드화 및 관광 홍보 마케팅 자

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분야는 ▲슬로건, 일러스트, 캐릭터, 캘리그라피 등 아트웍 분야 ▲미니다큐, 애니메이션, CF 영상 등 홍보 영상 ▲관광 기념품 ▲코로나19 이후 트렌드에 맞는 언택트 관광 상품·관광 코스 ▲기타 영천9경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관광 콘텐츠 등 영천9경을 나타낼 수 있는 아이디어다.

영천9경에 관심 있는 개인 또는 팀(4인 이내)으로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참가 희망자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참가신청서, 설명

서 등 제출서류를 이메일(a890213@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11월말 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대상 1명(팀) 300만원, 금상 1명(팀) 200만원, 은상 2명(팀) 각 100만원, 동상 3명(팀) 각 50만원, 장려상 5명(팀) 각 20만원 총 12명(팀)의 작품을 선정한다.

입상작은 영천9경 관광홍보물 제작,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 전반적인 관광마케팅 추진에 활용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yc.go.kr) > 정보공개/개방 > 시정소식 > 고시/공고 ‘영천9경 관광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관광진흥과(관광마케팅 담당, 전화 054-330-6584~5)



# ‘119아이행복 돌봄터’ 전 소방관서 확대... 만 3개월~12세 소방서가 대신 돌봐

### 양육자 긴급상황 발생 시 아동돌봄서비스, 24시간 무료

영천소방서가 올해부터 직원들의 긴급한 사정으로 아이돌봄(만 3개월~12세)이 필요할 경우 소방서에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됐다.

경상북도는 지난달부터 저출생 극복 경북형 아이행복 시책 일환으로 도내 3개소(구미, 경산, 영덕소방서)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119아이행복 돌봄터’를 전 소방서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9개소(포항북부, 경주, 김천, 안동, 영천, 예천, 칠곡, 청송, 봉화소방서)와 2023년 9개 소방서(포항남부,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청도, 고령, 성주, 울진소방서)로 시범운영 소방서를 포함해 경북도내 전 소방서

로 확대한다.

119아이행복 돌봄터는 국민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119가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시켜 저출생 문제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119아이행복 돌봄터는 양육자의 재난 및 질병이나 상해, 출장 또는 야근, 휴원(교) 등의 긴급한 사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만 3개월~12세 아동을 대상으로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며, 119나 해당 소방서에 신청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또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는 아이 친화적 돌봄터 환경을 조성하고



돌봄지킴이 전문 과정을 수료한 여성이용소방대원이 엄마와 같은

따뜻한 손길로 아동을 돌보며 맞춤형 소방안전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장지수 기자

## 영천시의회 제9대 의원연구모임 9월 결성 예정

### 하기태 의장, 김선태·김용문 의원... 영천 보육환경개선 나선다



영천시의회 2022년도 의원연구모임 주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의원 3명이 1조로 4개 연구모임이 9월중에 결성돼 올해안에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의회사무국과 의원들에 따르면 가장 먼저 ▲하기태 의장, 김선태·

김용문 의원은 ‘아이키우기 좋은 영천 만들기’를 주제로 지역 보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육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어린이집이 모두 만족하는 영·유아 보육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박주학 운영위원장과 배수예·권기환 의원은 지역 복숭아 재배기술 강화 및 명품과일 생산으로 조기 출하와 제값받기를 주제로 정했다.

또 ▲김상호 총무위원장과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 및 김종욱 의원 3명은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되

며 ▲우애자 부의장과 이영기·이영우 의원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레프팅 코스 조성 등을 소재로 지역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들 4개조 의원연구모임은 의원 1인당 500만원을 기준으로 한 조당 1500만원을 한정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연구모임을 결성해야 하고 하반기에 임기가 시작된 만큼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의원들은 당분간 휴가철인 관계로 오는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올해 제1차 정례회에서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장지수 기자

## 영천, 제2호 돌봄센터 ‘라운 마을돌봄터’ 10일 개소식



10일 영천돌봄센터 2호점인 ‘라운 마을돌봄터’ 개소식 행사중 아이들과 기념촬영하는 최기문 영천시장.

### 창신아파트(창신1길 11) 영동새마을금고 2층...정원 25명

영천시가 10일 영천시 창신1길 11번지(영동새마을금고 2층)에 영천 돌봄센터 2호점인 ‘라운 마을돌봄터’(센터장 최희수)를 개소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으로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앞서 영천시는 작년 12월 문내 LH영천센트럴타운 1호점을 개설한 데 이어 이번 창신아파트 돌봄센터

‘라운 마을돌봄터’는 2호점이다. 영천시는 또 연내 한신휴 아파트에 3호점, 내년에 금호지역과 완산지역에 각각 4,5호점을 개소해 지역 학부모 돌봄공백을 점차 줄여 나갈 계획이다.

돌봄센터 이용대상 어린이는 만6세~12세까지로 이번 2호점인 ‘라운 마을돌봄터’는 정원 25명에 이용요금은 1명당 5만원이다.

한편 이날 이만희국회의원의 축사와 윤승오 경북도교육위원장, 주원영 영천교육지원청장, 최기문 영천시장, 하기태 시의원 및 기타의원들과 함께 가족행복과 직원 및 돌봄센터 직원 및 입주민이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김효정 기자

## ‘교보생명컵 전국유도대회’ 금호초 최지영 초등부 금메달

금호초등학교(교장 권동환) 유도부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한 ‘교보생명컵 전국유도대회’에 참가해 초등부 -48kg급 개인전 경기에서 최지영양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금호초등학교 유도부는 2013년 7월 창단해 매년 대회를 참가했으며 최지영양(사진 원안)은 본교 6학년 학생이다.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최지영 학생은 “6학년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성적을 내어 기쁘다. 초등학교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열심히 연습하여 다음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효정 기자

## 자천초, 전 학년 대상 여름방학 영어캠프

자천초등학교(교장 정순이)는 지난 달 28일부터 29일까지 전학년을 대상으로 통합 주제별(Content based learning)수업 중심의 영어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영어캠프는 영어 노출 기회

가 적은 농촌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영어 프로그램으로 제공된 교육의 기회이다.

또 학년 군에 따라 3개 반으로 나눠 평소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활동들로 진행했다.

반에 따른 활동 구성은 △1-2학년군은 알파벳을 이용한 신체표현 및 놀이 활동 △3-4학년군은 숫자, 몸, 식물 등 주제별 단어 익히는 활동 등 △5-6학년군은 챗봇 활용 율동 및 게임 활동 등이다. 김효정 기자

## 영동중 희망나눔 봉사 동아리, 효도활동

경북 영천지역 동부동 소재 사립중학교(남) 봉사 동아리 학생들이 그동안 코로나19로 억눌린 복지시설 어르신들을 위로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영동중학교(교장 김영순) 희망나눔 봉사동아리 학생 20여명은 지난 달 26일 인근 참좋은요양병원을 방문하고 어르신들앞에 재롱도 떨고 요리도 하며 하루 동안 효도 활동을 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인 이날 행사에서 학생들은 학교 특기 적성 시간에 익힌 기량을 발휘해 빵을



구워 할머니들께 기부하고 재롱과 장기도 선보였다.

“영동중학교 희망나눔 봉사 동아리는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을 찾아 내 밝게 승화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순수한 학생들의 모임이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김효정 기자



# 북안면, 신리리 마을회관 준공 1년8개월만에 뒤늦게 준공식

### 도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일환으로 기초생활 수준 보장

영천시 북안면 신리리 마을회관이 준공된지 1년8개월이 지났지만 코로나19로 뒤늦게 준공식을 갖고 주민들의 의견교환과 마을 공동체 생활이 본격 활기를 띠 전망이다.

영천시 북안면(면장 윤동훈)은 지난달 26일 신리리 마을회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은 윤 면장을 비롯해 이준우 도의원, 김수용 이만희 의원 보좌관,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수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신리리 마을회관은 도계권역단위의 사업 중 하나로 사업비 5억 3,000만원을 들여 174㎡ 규모로 2020년 12월 4일에 준공됐다.

준공식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연기됐다가 중복을 맞이해 중복 행사와 준공식을 함께 가졌다.

윤동훈 북안면장은 “신리리 마을회관이 주민화합을 이끌어가는 장소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마을회관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 영천시의회, **보현산댐** 출렁다리사업 현장 방문

영천시의회(의장 하기태)는 의원들과 함께 지난 5일 보현산댐 인도교(출렁다리)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안전한 공사를 당부했다.

이날 두 기관은 인근 짚와이어 운영장을 방문해 체험하고, 관계자들에게 보현산권역 관광벨트사업이 영천시 관광사업의 활성화 지렛대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보현산댐 인도교는 주탑과 주탑 사이 거리 350m, 총연장 530m다.

주변 탐방로(L=2.5km), 수변광장(A=2,900㎡)과 함께 조성하여 영천시 대표 랜드마크로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기태 영천시의회 의장은 “보현산 권역 체험형 관광이 현재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인도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관광벨트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공사 관계자분들은 안전에 항상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장지수 기자



## 영천시장애인복지관, 초등 특수교육 계절학교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권순중)은 지역사회 참여와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관내 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8명을 대상으로 계절학교를 실시한다.

이번 계절학교는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주원영)과 2021년 업무협약한 공동사업으로 작년 여름·겨울계절학교 이후 세 번째 계절학교 진행이다.

이번 여름 계절학교는 복지관 내 일상생활 프로그램 및 신체활동과 음악활동 외에도 클라이밍, 치즈만

들기 등이 준비됐다.

또 국립박물관 관람, 문화재 탐방, 영화관람 등의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초등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

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활동 시간 및 기본 생활 태도 향상과 사회적응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효정 기자



## 영천시, 맥류·봄 감자 보급종 신청 접수

영천시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정부 보급종인 맥류·봄 감자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

이번에 공급할 맥류 보급종은 걸보리(큰알보리1호) 2,500kg, 쌀보리(재안찰쌀보리) 800kg, 호밀(곡우)

300kg로 2작물 3품종이다.

공급가격은 소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어 20kg 1포 기준 걸보리는 소독 26,610원, 미소독 25,060원, 쌀보리는 소독 28,380원, 미소독 26,830원, 호밀은 미소독 종자만 공급해 공급가격은 41,590원이다.

한편 봄 감자 보급종은 수미 4,900kg, 두백 100kg 2품종으로 공급가격은 20kg 1상자 기준 수미는 31,680원, 두백은 37,600원이다.

맥류 종자는 이달 23일까지이고 봄 감자는 26일까지 신청을 받아 공급량이 확정되면 지역 농협을 통해 맥류는 9~10월 중, 감자는 11월 중 공급될 예정이다.

김효정 기자

**Bluehands** **영천현대서비스** 현대자동차 삼천리서비스를 **영천 현대서비스**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고객들께서 보내주시는 변함없는 성원을 잊지 않고 새로운 각오로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현대서비스 대표 류시홍

**Since 1983**

**대·소형 자동차 종합검사**  
(대구 및 타지역 차량도 검사 가능)

**현대자동차**  
**A/S센터**

**영업시간안내**

영업시간/입출고가능시간  
**09:00 ~ 18:00**

토요일  
**09:00 ~ 16:00**

공휴일 휴무

TEL. 054) 337-3005~7 FAX. 054) 337-3004 / 010-5210-3002 위치: 금호읍 신월리 경축사료 뒤



# “어머 이렇게 더러운데 운영은 하나?”… 화랑설화마을 불청객 ‘비둘기’ 배설물

핵심 시설 '신화랑주제관' 체험시설 69%(16개 중 11개) 이용 불가(고장) 만4세~12세까지 입장… 만4세(6세)이하 어린이 보호자 동반 입장 조건 완화 요구

## [긴급 현장 탐방]

“어머 이렇게 더러운데 운영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6세 자녀를 데리고 영천 지인의 집에 들렀다가 영천 랜드마크로 불려지는 ‘화랑설화마을’을 찾은 경주시의 한 관광객 A씨(43, 여)의 뼈 아픈 지적이다.

2일 A씨는 지인과 함께 본지에 전화해 “현장에 한번 나와보십시오. 이게 영천의 얼굴입니다. 장비는 고장이 나서 이용할 수가 없고, 건물은 지저분해도 직원들은 에어컨 아래서 꼼짝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은 꼬박꼬박 내고 관람했습니다. 돈 환불해 주셔야 하는것 아닙니까?”며 본지에 문의해 왔다.

A씨의 제보에 이날 오후 3시경 화랑설화마을을 찾았다. A씨가 지목한 '신화랑주제관'을 확인한 결과, 건물 입구에는 비둘기 배설물로 일부 관광객들은 조심조심 비켜가며 주제관 입구로 들어갔다. 비둘기 배설물이 일주일은 지난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곳도 있고 방금 낙하한 배설물도 있다. 천정을 올려다 보니 어미 비둘기가 새끼를 품고 연신 배설물을 배출하고 있었고 건물 앞쪽 50여미터 15여 곳이 이같은 비둘기 배설물로 얼룩져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



리게 했다. “비둘기가 이곳에 둥지를 튼지는 이미 오래 됐다”는 관리인의 말이다.

신분을 밝히고 '신화랑우주체험관'으로 입장했다. 어린이(6세~14세까지만 입장) 개인에게는 5천원, 단체에는 4천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 화랑말타기(3석), 유오스페이스(8석), 활쏘기체험(5석) 등 모두 16석을 체험할 수 있다. 장황한 입구를

들어서자 오색 찬란한 조명이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하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유오스페이스(VR 체험)시설 4세트(8명) 중 유독 한 세트만 아이와 보호자가 동반 탑승해 이용하고 있었다. 안내원에게 나머지 3세트(6명)는 이용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모두 고장이라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것. 그것도 벌써 3~4개월여가 지났

다는 것이다. 손님이 많을 때는 밖에서 기다린다는 팁까지 전해졌다.

다시 체험장 입구 바깥을 둘러봤다. 기다리는 동안 전자로 연결된 활 체험장에 다섯석이 준비돼 있다. 그런데 한 곳에만 어린이가 활을 쏘고 있는데 이곳마저도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 안내원은 “고장이 났지만 어쩌다 될때도 있다”며 활을 만지작 거렸다. 나머지 4석은 이미 1년전에 고장으로 아예 활을 제거해 두었다. 전체 이용시설의 69%(11곳)가 이처럼 고장으로 이용이 불가했다. 하지만 이용 요금은 꼬박꼬박 받았다.

현장 사무실을 찾았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대책을 물었다. 비둘기 배설물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며, 비둘기 퇴치를 위한 예산(1500만원)을 편성해 오는 추경에 의회 승인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바닥 배설물은 20여마리의 비둘기가 매일 쏟아내 미처 처리를 제때 하지 못했다며 즉각 청소하겠다고 답변이다. 또 고장난 시설물은 정밀 전자장비로 당초 설치업체가 서울에 있어 오는 14일쯤 수리 예약이 되어 있다고 밝혔고, 고장난 활은 준비되는대로 교체할 예정이라는 답변.

지난달 26일 영천 관광시설 대부분을 관리하는 영천시시설관리공단이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257개 기관 중 최하위 9개 기관에 포함) 성적을 받

은 가운데 이번에는 영천시가 직접 관리하는 영천의 랜드마크 '화랑설화마을'이 그것도 외지인에 의해 지적을 받은 것이 우연은 아니었다.

“이렇게 지저분한데도 직원들은 에어컨 아래서 꼼짝도 하지 않고 남의 일처럼 강건너 불구경하듯 나몰라라 하는 것이 눈에 거슬렀다”는 A씨의 지적이 못내 따깝게 들렸다. 이곳 화랑설화마을을 관리하는 직원은 공무원 3명을 포함해 기간제 직원 8명 등 모두 11명이 근무하고 있다.

취재 후 A씨의 영천 지인에게 연락했다. “고장난 장비는 고가로 서울업체가 수리를 담당해 오는 14일에야 정상작동이 가능하며, 비둘기 배설물은 지적하신대로 오늘 현장에서 즉각 처리하고, 매일 1명의 인력을 배치해 깨끗한 환경으로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완료했다”고 알려드리고 지적 감사하다고 말씀 좀 전해달라며 당부했다.

그러나 이 지인은 “스스로 알아서 선제적으로 해결 못하고 꼭 이렇게 지적해야 해결이 되니 영천시의 손님맞이 자세를 적극 서비스로 변경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지금 화랑설화마을 입장을 만4세~12세로 제한하는데 어린이(4세 이하)를 데리고 온 부모는 불편하다”면서 “4세 이하 어린이도 보호자가 동반하면 입장을 허락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장지수 기자

## 본지 지적 하루 만에 발빠르게 정비 나선 ‘화랑설화마을’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천시는 지난 4일 ‘화랑과 별, 설화를 테마로 한 관광테마파크’인 화랑설화마을의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지난 3일 본지가 [긴급탐방]으로 '신화랑주제관' 체험시설 69%(16개 중 11개) 이용 불가(고장)과 불청객 '비둘기' 배설물을 지적한지 하루 만이다.

영천시는 이날 “우주체험관, 화랑 4D돔 영상관, 화랑 배움터, 주제관 입구, 야외시설 등 곳곳의 환경을 정비하고, 개선사항을 점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시는 화랑설화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공무원 및 기간제 직원들이 함께 설화마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도 가졌다는 것.

화랑설화마을은 2020년 8월 개관해 지난해에는 약 7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했다고 밝힌 시는 지난 달 26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오후 10시까지 야외시설을 개방하는 야간개장을 운영 중이다. 장지수 기자



## 읍지연습 설명회 개최... 올해 54번째 읍지연습 2017년 이후 축소

읍지연습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실시

읍지연습이 대내외 여건상 2017년 이후 정부 연습이 축소·실시된 점을 감안해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다.

경북교육청은 8일 홍익관에서 부서장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읍지연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읍지연습에서 △공무원 비상소집 △기관장 중심 현안 토의 △실제 상황에 대비한 사건 계획 메시지 훈련 △민방공 대피

훈련 △전시 학교 재배치 훈련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읍지연습은 54회째 맞으며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단체, 중점관리 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에서 48만여명이 참여한다.

읍지연습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 계획을 검토 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



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

김효정 기자

### “꼭 수령하세요”

2022년 하반기 농·어민수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영천사랑상품권 30만원

영천시가 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하반기분 30만원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와 증진을 위해 농가에 연 60만원을 지급하는 수당이다.

경북도는 지난 6월 30일까지 상반기분 30만원을 영천시를 통해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이번 하반기는 상반기 지급 대상자 중 도내 거주 및 경작, 경영체 유지, 승계 여부 등 자격 검증을 거쳐 13,164농가에 394,920만원을 최종 확정했다.

대상자들은 8월 1일부터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가 신청·접수한 장소와 달리 관외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경우는 새 주소지 읍·면·동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수급권이 소멸된다.



김문길 칼럼



김문길 교수  
일본국립교토대학  
대학원 일본문화연구

이번에는 '박어둔'이다

'박어둔'을 주목하라!

'안영복' 보다 더 독도 지키 박어둔

김문길 박사는 경북 영천 호당 출신으로 전국에서 처음 '마상재'를 영천에서 발굴 재현 한 올해 77세 올드 학술인이다. 2013년 5월 당시 한해련도위원을 통해 조선통신사의 핵심 주제인 '마상재'(기마문화) 복원을 위한 '도의회 5분발언'을 촉발시킨 장본인으로 이어 같은 해 영천상공회의소에서 '영천대마문화 창조를 위한 한·일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 국내 몇 안되는 일본문화(사) 전문가인 김 박사는 2020년부터 본지 논설위원으로 있으면서 '일본 속에서 조선 역사를 찾는다'를 연재해 왔다. 그동안 본지를 통해서도 일본 속 한글 신대문자, 영천성 수복, 대마도는 조선 부속 섬, 논개 무덤의 진실, 일본 최초의 조선 두부 기술, 일본에 끌려간 김해 여도공 백파선, 조선 병사 귀·코무덤 등 수많은 조선 역사를 찾아 바로세웠다. 그런 김 박사가 이번에는 '박어둔'을 재조명했다. 안영복의 그늘에 가려 안영복 보다 더 독도를 지키 박어둔의 행적과 공로를 발굴해 그 뜻을 선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편집자 주>

◆ 새로운 사실...독도를 지켜 우리섬으로 만든 박어둔(朴於屯)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한·일 사이에 독도문제가 터질 때 마다 독도는 한국영토라며 독도를 지켜준 안영복(安龍福)을 고맙게 떠올린다.

실은 그렇지 않다. 안영복과 함께 독도를 지키 '박어둔'의 역할이 더 크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은 안영복이 독도를 지켜 한국땅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안씨 종친회에 안영복의 의인 업적을 높이 평가하면서 부각됐다. 장군의 명칭도 하사해 독도 지킴이라며 안영복 업적을 찬양한다.

또 안영복 업적을 기리기 위해 울릉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안영복 기념관 박물관을 건립해 후세 교육관으로 삼고 그의 선양사업에 힘을 실었다.

물론 영토 수호 정신은 후세대 귀감이 되는 것이지만 역사는 바로 알아야 한다. 안영복과 함께 독도를 지키 박어둔을 우리는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었다. 안영복의 그늘에 가려 안영복을 잊게한 박어둔은 우리의 뇌리에서 점차 멀어져갔다.

지금으로부터 330여년전 독도를 일본인이 자기 영토로 만들기 위해 많은 일본 어선이 들어 와 고기잡이를 일삼을때 부산 안영복

1693년 안영복과 박어둔이 울릉도에서 납치되어 일본에 갔다온 3년 후 안영복과 뇌헌(여수 흥국사)스님 등 11명이 울릉도와 독도를 경유, 도일(渡日)해서 두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돌아왔다는 문서가 이를 증명한다.

박어둔은 당시 울산에 염전을 경영하는 소금 상인이다. 당시 염전은 지금의 삼성 반도체에 버금가는 경제력이다. 염전을 운영하면 당연히 배도 있어야 한다. 독도를 지키는 데는 배와 경제력은 필수다. 이 모든 뒷받침을 박어둔이 책임졌다. 다만 안영복은 부산에 거주하며 일본사람과 접촉이 많아 일본어가 능통했다. 박어둔의 뒷 힘으로 안영복이 독도지킴

일본땅이라 어선이 출항 하도록 하였으나 지금부터는 항해를 금한다"라고 기록돼 있다. 매우 귀한 문서사료다. 이문서를 바로 내(김문길 박사)가 발견해 보도했다.

더군다나 1853년 일본 통치자는 금지령이 내려 저도 밀업을 하니 밀업하는 자들을 사형 까지 시킨 문서도 필자가 일본비밀문서실에서 발견해 세상에 알렸다. 이와 함께 본 필자가 박어둔 사건후 일본 막부의 지도 학자는 독도(죽도)는 "조선이 소유한 섬"이란 지도를 제작해 보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 만천하에 공개했다.

박어둔 안영복이 아니었으면 아마도 독도는 그 때부터 일본땅이 되었는지 모른다. 본 필자는 하물며 대마도가 조선 부속 섬이라는 것도 증명했는데 우리 영토 독도를 지키 박어둔의 업적이 결코 안영복보다 작지않은 것을 세상에 밝히고자 한다.

이 때문에 필자를 선두로 지난6월 박어둔의 생가터에 독도 수호 박어둔 생가표적 판을 세웠다. 울주 부군수, 울산 정토사 주지, 향토사학자 이양훈 선생도 참석했다.

이런 가운데 안영복만 독도를 지켰다고 알려진 사실과 국가 예산을 들여 안영복 사료관(박물관)도 건립해 선양하므로써 더 큰 박어둔의 업적이 묻히고 있다는것이 안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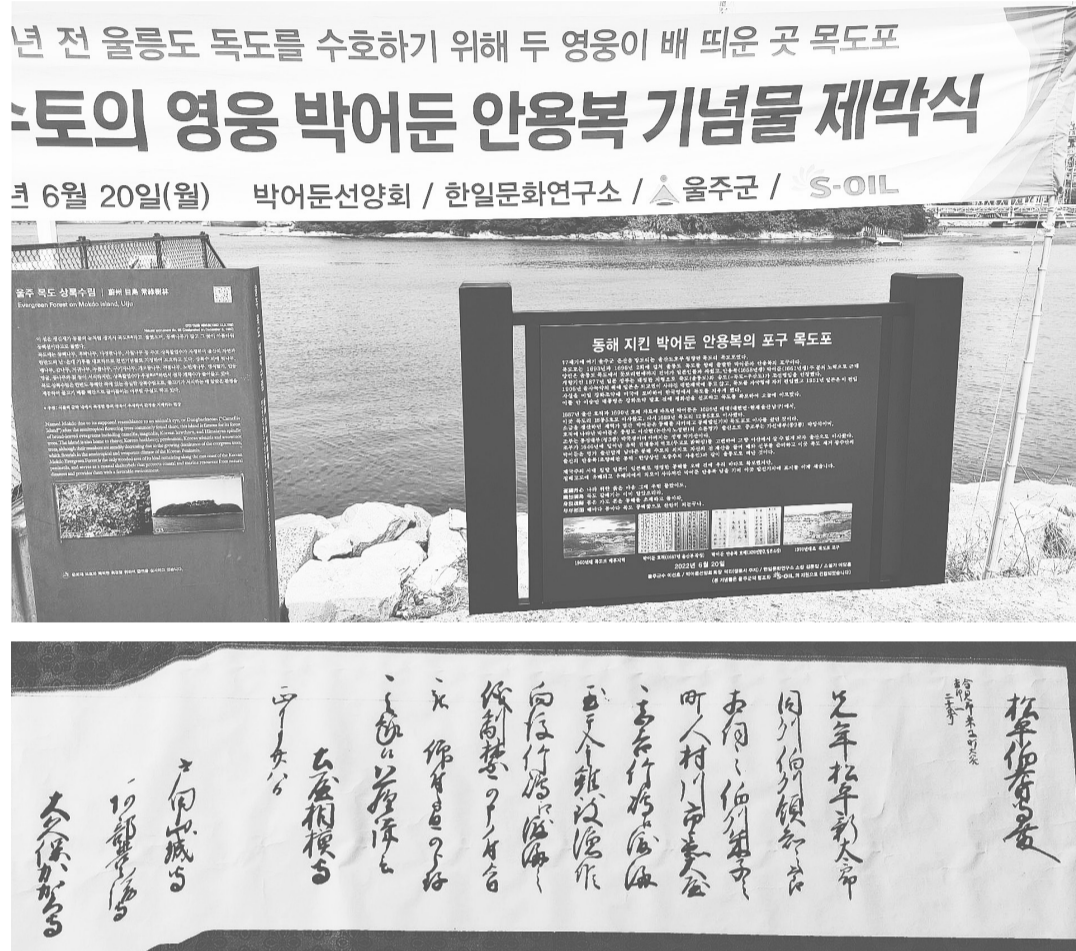
따라서 필자는 주장한다. 이제라도「안영복 사료관」명칭을「박어둔·안영복 사료관」으로 변경해 두 애국자를 함께 기려야 할것이다.

마침 올해 초 울산(남구)과 경북(울릉군)이 양도시간 교류확대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도 "조선시대부터 울산이 독도수호 활동의 거점이었다는 사실은 역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울산 출신 박어둔이 안영복과 함께 독도 수호에 앞장선 기록"을 인정했다.

늦었지만 2014년 본 필자와 함께 울산 '정토사'에서 발족한 '독도수호 박어둔 선양회'를 위시해 박씨 문중에서도 안씨 종친회와 교류해 양 가문이 조상의 업적을 공동으로 선양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쓴다.

[김문길 약력]

영천 청동면 호당리 출생, 호는 峴井(현정) 계명대학 졸업  
일본 경도 대학 연구  
국립 고베 대학 한일관계사 전공  
일본 고베대학 학술박사, 철학 박사 취득  
계명대학 부산외국어 대학 교수(퇴직)  
한일문화연구소 소장



과 울산 박어둔이 독도에서 일본인들을 쫓아냈다. 이리기를 수년간 반복하자 숫자가 많은 일본 어부들이 안영복과 박어둔을 일본으로 납치해 가게 된다.

일본에 간 박어둔과 안영복은 일본왕에게 "독도는 조선땅 인데 대마도 왜구들이 경상도 울릉도 독도바다까지 들어와 사람을 죽이고 많은 것을 약탈해가니 조선 임금님이 울릉도 독도에 사람이 살지 않도록 공도(空島)정책을 쓸 때 일본어선이 들어 와서 행패를 부리고 고기를 잡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의 입이되어 원탐을 이뤘다.

일본 '죽도고(竹島考)'란 기록문에 안영복 보다 박어둔의 인적을 울산 청량 목도리 12로 적고, 박어둔을 양반, 안영복은 천민으로 기록돼 있다. 바로 박어둔을 주요인물로 본 것이다. 따라서 일본사에서는 박어둔을 안영복 보다 독도관련 주요인물로 보고 있다.

일본 왕도 독도가 조선땅이란 것을 인지하고, 1696년 독도는 조선땅이니 일본어선이 독도에 들어가지 못한다. 금지령이 내려진 것이다. 해당 금지령에는 "지금까지 죽도(독도)는



영천시의회는  
시민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하나된 모습으로, 더 낮은 자세로  
작은 의견에도 귀 기울이며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영천시의회 제9대 의원>>

김용문, 이영우, 배수예, 김선태, 김종욱, 이영기, 권기한, 이갑균, 김상호, 박주학, 우애자, 하기태



# 영천시의회, '지역 관광자원 활성화' 벤치마킹 발품

포항 현지 과메기센터, 일본인 거리 등 13명(의원 8명 사무국 직원 5명)



영천시의회(의장 하기태)가 지난 4일 지역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우수시설 벤치마킹에 나섰다. 최신 관광트렌드와 방문객 유인요소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날 의회는 포항 주요 관광시설인 구룡포 과메기문화관을 비롯해 최근 인기 드라마 촬영지로 급부상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근대문화역사거리(일본인거리) 등 인기 시설을 견학하고 돌아왔다.

이번 현지 관광벤치마킹에는 김종욱·이영우·배수예·김선태 의원 4명을 제외한 8명과 직원 5명 등 모두 13명이 함께 했다.

하기태 영천시의회 의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며 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영천시도 관광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기존관광자원과 결합한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번 벤치마킹에서 나온 의견들을 구체화해 영천시 관광콘텐츠 발굴에 지속적인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지수 기자

## 도의회 홈페이지 좀 봐주세요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사진)는 제12대 도의회 출범과 함께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소식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개편된 홈페이지

지(council.gb.go.kr)를 8월 9일부터 운영한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과 메뉴를 재구성하는 한편 의원정보와 자주 찾는 메뉴는 첫 화면에 배치하는 등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도의회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의정소식을 전달함으로써 소통을 강화했으며, 또한 IT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홈페이지 내 문서를 다운로드 없이 원클릭 열람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보강했다.

배한철 의장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으로 도민들께 의정소식을 한층 쉽고 편리하게 알려드릴 수 있게 됐다"며 "홈페이지의 다양한 메뉴를 통해 보다 많은 소식을 제공하여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기대하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예천 곤충산업에 깊은 관심 나타내

예천곤충축제장 참석해 전재업 예천 부군수에 격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이 예천군의 곤충산업 미래 지향성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배 의장은 지난 6일 예천군 한천체육공원에서 개막한 SEMI 곤충엑스포 2022예천곤충축제에 도기육, 이형식 예천 지역도의회원과 함께 축제 종합상황실을 방문하고 "예천의 곤충축제가 지역 미래 먹거리산업을 견인할 것을 확신한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배 의장은 또 전재업 부군수에게 도의회에서 마련한 격려품(물 넥밴)을 전달하

고 "농림축산식품부까지 나서서 예천을 곤충산업 거점단지로 조성하는 만큼 道の회에서 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배한철 의장은 또 "예천 지보면 매창

리에 곤충원료 대량 생산, 가공, 유통 시설을 집적화한 거점단지 조성에도 의회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예천의 곤충산업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장지수 기자

## 경북 동남권 교육장 협의회 개최 영천교육지원청, 사례·정보 공유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주원영·사진)은 8월 2일(화) 영천교육지원청 소회의실에서 동남권 교육장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포항, 경주, 경산, 영덕, 청도, 울진, 울릉, 영천 8개 지역 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일상회복 지원 방안 및 교육 현안과 경북교육 정책 실현을 위한 추진 과제를 협의하고 지역별 사례 및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영천교육지원청은 '삶이 아름답고 희망을 주는 영천교육' 지표 아래 그동안 추진한 교육 성과 및 특색사업과 현안사업을 간단히 소개하고 협의회 후에는 최무선 과학관 등 영천지역 체험기관을 방문하여 교육지원청 간 지역 연계 진로체험 활성화 방안 등을 공유하였다.

주원영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호국충절과 별의 고장 영천에서 동남권 교육장 협의회를 개최함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협의회에서 각 지역정별 교육 현안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서로 협력하여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지수 기자



# 영동중, 세 번째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장학생' 탄생 시켜

매월 25만원과 1:1 멘토링(교사) 진로 컨설팅 등의 지원 받는다



영동중학교 2학년 이 모군이 '꿈사다리 장학사업' 장학생으로 선발돼 매월 25만원과 1:1 멘토링(교사), 진로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는다.

영동중학교(교장 김영순)는 지난달 29일 "본교 이 모군(2년)이 '제4기 복권기금 꿈사다리 사업' 장학생으로 선발돼 교육부 장관 장학증서를 받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전국의 중고생 1,500명(중 600명, 고 900명)을 선발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2019년부터 시작돼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국가 장학

사업이다.

이 군이 경북 전체 118명의 제4기 선발대상 학생에 포함되면서 영동중학교는 지금까지 세 번째 '꿈사다리 장학생'을 탄생시켰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학업 계획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장학금(중학생 매월 25만원, 고등학생 매월 35만원, 대학생 매월 45만원)과 복꿈 성장 멘토링(교사와 1:1멘토링을 통해 장학금 이외에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장학생의 체계적 성장지원) 및 교육프로그램(멘토링 캠프, 진로컨설팅), 복꿈 나눔 멘토링(대학교 장학생이 중, 고교 장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장학생간의 소통, 교류 및 상호 성장 기회 제공)이 지원된다. 김효정 기자

# 임고면 정승표씨, 이만희 국회의원으로부터 효행상 받아

고향사랑과 봉사정신 남달라



지난달 26일 임고면 출신 정승표씨가 남다른 효행으로 주변의 추천을 받아 지역 이만희 국회의원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정 씨는 임고면 효리 정지영(80세)씨와 이순태(79세)씨의 3남으로 고향을 지킨 임고토박이 효자 청년이다. 다른 이들과 달리 학업과 생업을 이유로 일찍 타지로 나가지 않고 묵묵히 고향에 남아 지금까지 양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봉양해 오면서 가족간의 화목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영동새마을금고 임고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정씨는 평소에도 금고를 이용하는 지역의 어르신들을 친절하게 응대하고 봉사하는 정신이 남달라 많은 칭찬을 듣는 젊은 이로 알려졌다.

이만희 의원으로부터 효행표창을 받은 정승표씨는 "옛날부터 부모님이 조부모님께 하는 것처럼 모셨는데 이런 상을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지금까지 부모님을 잘 모시고 주변 어르신들에게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 들이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김섭 변호사의 法鏡



대표 변호사 김섭  
성광합동법률사무소

임차료 2년 연체했다고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나?

상가보호임대차계약법...안돼,  
3년 이상 연체해야 가능  
임대차계약서에 2기 연체만으로  
계약 해제 적시는 무효

**문** 甲 소유의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지 않는 이상 상가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2기분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답** 2015. 5. 13.자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전 판례는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한 임대

인의 갱신요구거절권은 계약해지권과 행사시기, 효과 등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이 민법 제640조에서 정한 계약해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민법 제640조에 대한 특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도 민법 제640조가 적용되고, 상가건물의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민법 제640조와 동일한 내용을 정한 약정이 상가임대차법의 규정에 위반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위 법 제15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15. 5. 13.자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비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귀하의 경우 비록 임대차계약서에 2기의 차임 연체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따라서 2기의 차임연체만으로는 계약해지를 당할 염려는 없다 할 것이다.

☞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섭 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범어동 348-15, 울촌빌딩 501호  
전화 053)755-7500

세무



윤영민 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코로나 이후 기업 인건비와 세금 관계

- 비과세 아닌 인건비는  
근로소득세와 지방근로소득세 대상  
근로자·사용자 합의 일용직 신고...  
퇴직금 정산에 문제  
사업자의 근로소득신고 축소...  
사업소득 과다 원인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은 물론 기업의 경제에도 전반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게 다가왔다. 인건비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세금과 공적보험 등의 부과로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근로자나 모두 금전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기도 한다. 오늘은 인건비와 세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근로자가 각종 임금과 수당 등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와 지방근로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 부담분 등도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부담하게 된다.

간혹 근로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과 공적보험료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부담은 느끼는 경우에 합의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신고하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추후 퇴직금 산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비과세에 해당하는 근로소득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모두 사업에 투입된 인건비로 보아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공제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세무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되는 인건비에 반드시 부과되는 공적보험료가 부담된다면서 근로소득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이 아닌 항목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장의 소득이 과다하게 산출되어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법인사업장에서 이런 일이 지속되는 경우 법인 사업자의 경우 과다한 가지급금이 누적되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사설]

영천시 관광정책 새로 점검해야

보현산천문대, 천문과학관, 목재체험관, 짚와이어, 보현산땀출렁다리(조성중), 한의마을, 화랑설화마을,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호국원, 영천전투호국기념관, 임고(평천) 강변공원, 영천땀공원, 치산관광단지, 운주산승마휴양림, 최무선과학관, 임고서원, 노계기념관, 은혜사, 경마공원(조성중), 돌함매...20여곳의 영천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불리는 이름들이다.

그런데 딱히 이거다 하는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 전체 영천관광정책에도 그렇다 할 미래 비전이 확 다가오지 않는다. 경북도가 관광으로 미래 먹거리를 찾겠다며 연초부터 보조금과 도 지원을 쏟아부어 여름이면 각 시·군마다 각종 축제를 개최해 전국 관광객 끌어모으기에 혈안이었던 영천은 지원 받을 거리가 없다. 그냥 잠잠하다.

이런 가운데 관광시설물을 운영 관리하는 영천시시설관리공단이 전국 457개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위 9개 기관에 포함됐다. 한마디로 손님을 끌어오지 못했다는 성적표다. 영천시 관광정책이 지역 관광시설과 시너지효과를 이루지 못한 결과라 해도 틀린 의미는 아니다.

이쯤하면 의회가 나서서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당초 영천시가 직영 운영하다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해 100%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단에 시설을 맡기면서 관광 활성화를 기하겠다는 청사진이었다. 그런데 60여명의 직원들을 데리고 시작 2년만에 전국 최하위 성적표를 받았다. 매년 수십억원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설관리공단이 적자가 나도 직원들의 월급은 꼬박꼬박 지급된다. 개선 대책 없이는 직원이나 영천시의 안이한 자세로는 세금먹는 하마가 될지도 모른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 화랑설화마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설화마을의 경우 시설관리공단 산하의 시설은 아니지만 영천시의 관광시설 운영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한창 관광객이 늘어날 시기에 비둘기로 인한 배설물이 즉시 청소되지 못하고 수일씩 방치해 관광객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시설 활성화를 위한 직원들의 절박함이 없기 때문이고 이를 관리하는 영천시도 지금까지 눈 감고 시설을 점검했다는 반증이다.

체험시설은 69%가 고장나 있었다. 일부 시설은 3개월 동안 고장난 상태로 방치돼 있었고, 또 다른 어린이용 시설은 아예 1년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없었다. 심지어 고장난 시설 일부를 분리해 구석진 곳에 1년이 넘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는 커녕 수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화랑설화마을 한 곳에만 공무원 3명과 계약직원 9명 등 12명이 근무하는데도 아무도 1년이 넘도록 고장난 체험시설을 수리하겠다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영천시 최고 수장이 져야 한다.

본지 지적기사가 지난 3일 보도되자 다음날인 4일 영천시는 시설을 청소하고 대대적 시설 정비에 나섰다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지적 후 개선보다 앞서 선제적 적극적인 자세가 아쉽다.

특히 올해 초 시설공단 산하 시설인 짚와이어에서 하강 도중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을 일으켜 10대 청소년 탑승객 2명이 두 시간 넘게 고공에 매달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평소 준비없이 안이하게 운영해오다 발생한 사고였다. 이 사고는 아직도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금 운영을 재개하고 있다.

앞서 영천시는 △은혜사 △임고서원 △보현산천문대 △치산관광지 △보현산땀출렁다리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영천땀 뿔뿔 백리길 △영천 한의마을 △별별미술마을을 영천관광 9경으로 선정해 관광 아이디어 공모나, 관광객 이벤트 선물지급, 사진전 등으로 대대적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는 단순한 1차원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이다. 유동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현실적 관광 프로그램으로 대변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 먹거리와 국가 또는 경북도 정책과 결합하는 현실적 프로그램이 우선이다. 비록 관광자원이 부실하지만 굴뚝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만큼 새 판을 짜야 한다. 대구경북공항이 조성되면 공항물류단지 또는 배후 도시로 선제적인 눈길을 돌려야 한다.

화랑설화마을이나 시설관리공단처럼 안이하고 수동적인 자세로는 영천관광 발전은 요원하다.

‘영천신문’의 인터넷판  
‘영천투데이’를 클릭하면  
오늘이 보입니다  
Best!  
홈페이지(영천신문과 공통)  
www.yctoday.net  
기사제보 : yctoday1@naver.com

영천신문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장지수 | 인쇄인 ㈜중앙일보  
대표전화 332-2400 | FAX 335-6600 | E-mail ycn@yctoday.net  
구독료 : 월 5천원, 1년 6만원, 경상북도 영천시 호국로 17  
계좌번호 : 농협 301-0093-9954-51 (주)영천신문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할 말을 하는 영천신문’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구독료  
정론(正論)·정도(正道)의 한길을 꿰뚫어 걸어가겠습니다  
▶구독료: 월 5,000원 / 년 60,000원  
▶계좌번호 : 농협 301-0093-9954-51 (주)영천신문  
▶구독제보: TEL 332-2400 FAX 335-6600



알림

## 야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원님께 드리는 글

조합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현재 야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사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적고자 합니다.

2021. 4. 20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과 이후 여러차례 진행된 이사 및 대의원회의 의결 내용과 다른 대출약정이 2021. 8. 26 체결되었고, 지금 집행 구조가 디에스파트너스와 ㈜동남의 날인만으로 가능함으로 결과적으로 횡령의 안전장치 없이 약정을 체결하여 총 대출금 280억원 중 약 116억원 가량이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인출(횡령)되었습니다.

2022. 6. 24일자 이사회와 비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남과 계약해지를 강력히 주장하였고, ㈜동남이 본 조합에 100억여원에 대한 횡령 및 사기행위로 이는 조합에 이익을 해칠시 모든 민·형사책임과 손해배상을 지고 사업을 철수한다는 책임이행약약서(2021. 8. 27)등에 따라 지난 6.28일자 계약해지 공문을 조합장, 비대위원장 명의로 발송하여 계약이 실질적으로 해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7.28일자로 ㈜동남 관계자가 찾아와 당시 조합장과 감사1, 조합원1, 비대위원장이 입회한 가운데 감사가 금고문을 열고 동남측이 주장한 건축인가동의서, 합의서, 체비지매매와 관련한 서류 등에 날인하였습니다.

이는 총회(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현 조합장 등이 사업계획의 변경, 법제54조에 의한 체비지의 처분 방법 등은 정관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제 18조(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정관 제21조(회의 정족수)등에 따라 의결되어야 함에도 정관의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행위이므로 무효입니다.

또한 조합장은 조합의 운영비 1억8천5백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故 김민석의 개인통장에 입금하여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조합의 명예 손상과 이익을 해쳤고, 변상을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조합장의 직무를 명백히 유기하고 배임(횡령)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임에도 조합장은 동남측과 이익을 같이하고, 일부 대의원을 규합하여 조합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해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본 사업을 방해하고 기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 사실을 조합원에게 고지하오니 본 사업이 해가 되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8. 8.

영천시야사토지구획정리사업 이사회

경북의 새로운 대인민국

오여름, 어디로 떠날지 고민중인 당신!  
경북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만나기로 약속~

숙박체험 기본이용료 50% 할인 (2022년 8월~12월)

# 전 국민 파워 UP 프로젝트

일상에 지친 당신을 위한 혜택!  
농촌치유힐링 숙박·체험비를 지원합니다.  
문의처 | QR코드 공지사항 게시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예약 필수!